足』條約承認ら

地口復惟 9年 獨逸各政黨有志可讚銘 20二十二日愛)保守黨章包含亞獨適各政黨長 實際家學者經濟上可回復章完全刑事唯一並途 治上社會上央經濟上可回復章完全刑事唯一並途 公開寬言書で調印行8公司市

The Korea Paily News. Seoul, Korea, Tueslay, Nov. 24th, 1925. Thought are real forces-living messengers of power. Love thoughts, even when brought to bear upon our fains and trials, transform them and make them educational. ----Henry Wood.

ENGLISH FOR STUDENTS. GOOD MANNERS.

/ Politenss-Kindness. Rules, rules, rules! What scores of rules that ancient Chinese sage, Confucius, laid down for us to follow. Our old Korean books are full of them. And now since, day by day, East and West are blending more and more together, western rules are being introduced

"How in the world can I learn all of these rules. No sooner have I learned one, than another one appears. I'll surely forget them all," you may say. Be patient, my young friend. The task is far easier than you think. All that we call politeness is but the outward form of what

you fell in your inner self, your heart. If our hear:s are right, we are sure to act politely-One big rule covers all these smaller rules which come under it. Here it is:

Politeness is to do and say. The kindest thing in the kindest way. Study it; learn it; ponder over it, until it

becomes a part of your inner self. We must act and talk in ways that other people can understand. Each country has its own customs of courtesy but kindness underlies all of them. If, when we go to a foreign country, our hearts are full of kindness for others, then we shall very quickly larn the customs of that country and never do or say anything to make its people think that we are unkind. If we truly desire to be kind to our fellow Koreans and to our foreign guests we shall never have any difficulty in following both our old customs and the new ones which are being introduced.

Let us always try our best to do and say 1. Kindest thing in the Kindest way.

华大器

資料를蒐集引足がの関側の外債表量提出を受ける。二十一日午後

作作

一、神込場所と東亜日報原州安 田川の 日(約1日間) 日(約1日間)

本月二十五日三早刊三日本月二十五日三早刊三日本月二十五日三十五日早刊三日本月二十五日早刊三日本月二十五日三十五日十二十五日三日本月二十五日三日本月二十五日三十五十五日三日本月二十五日三十五日三日本月二十五日三十五日三日本月二十五日三十五日三日本

□ L 戦率 」 邑内新進處女梁某一近日の自働車遊興の頻頻が中立離某小忠告号呈が欠分中に可と記る。 該處女に名譽盟損の豆告訴言提起が以中立。 忠告者の別告訴云式の足景新式のファ

中和青年評議會
本月二十日朝鮮川報支局の分野議員會量別号立左批等項金次議

松汀中學紀念 新常州郡松汀面极汀里私立然 新常內別分科院設立和念式 重要 新常內別分科院設立和念式 重要 自由요實品 三相當可顧與並中日 自由요實品 三相當可顧與並中日 三十一次了

菜智識啓發調業獎勵和制度改善相共相助選事

所三、申込期限の乙丑十二月十日一、申込期限の乙丑十二月十日一、多加金二一人當一圓式一、多加金二一人當一圓式一、多加金二一人當一圓式一、多加金二一人當一圓式一、多加金二一人當一圓式一、多加金二一人當一圓式

成式地主豆早可受取喜 四到時亡一里叶中運賃金

知識の 知識の 知識の 新芸處理が四分分に可知體方面 が此員集會の支障の不少的の是 が此員集會の支障の不少的の是 が此員集會の支障の不少的の。 一月九日の創立總會言語の知題の で、 一月九日の創立總會言語の知題の で、 一月九日の創立總會言語のの知題の に 金泉郡

労働夜學

和互間水火が通勞力交際重の依が、罰金管際規則を知則き還反吐者の一個のでは、

【一十六百八千一第

이印소시일째를내

勝。上

주공장을신축하고 개업에 착수 면으로 그가리면회를 배설하였 는데 동군교육지원과 민준항상 서원도 초대를바더 다수하참성 서원도 초대를바더 다수하참성

言論權威擁護講

의 보기 가 이 의 기 가 이 의로 부 다 이 의로 부 다 이 의로 부 다 이 의로 부 다 이 의로 가 다 이 의로 가 이 의로

이면 결취한회수는 십이회라하 하였고 범인의지금 강계시에서 구속취묘정인대 투명이 모다보

사이에 중국기 (사이에 당) (사이

縊首屍體

의

작가 시작되었다. 항품으로 가 하였다 하였다

晋州共進會混雜 **覸衆十萬露宿者三千**

(乾繭場) 이제 그자에한내육이를때들이 전투통度) 이제 그자에한내육이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되야 하당하다가 대통해 사를 보대하야 유당하다가 대통해 이 은 수라장이되야 해 된 것 이 나는 사람이 되었다면 되었다면 나는 사람이 나는

성하름 로 디 진 진

面雲亭里)에 수도공사건독사무소(隧道工事監督事務所)들지으라고 다름다듬으라다가 운정리 등민과공사정부자(工事論負者) 사이에 일대충돌이되어 상성롭지못한 대풍과들니므리 이 상성름 기 등 사 하지 중지하면(다는데 그지 게한내용@置回면 동기디는 동군동반 금기미(金基里)홍순부 (洪淳武)와 동간동면운정미(重후里)한관련(韓寬烈)량시의 소유인깃을 동수리조합에서 교묘한수단을에서 한관혈시에게만 기부를받고 홍순부시에게는 아 사무소짓고저

보업 는

와는

年을が

구업소의

いミユ사랑の

부를가지고 때성(頂城) 에한건 사무원이로 현실의공을되고도라와 사무원이로 취직하여 일반군 민의 주목거리가되면 잇는리 다 그는 세월이 홀등을따라여 나도 장래의리상을 꿈구며남부 얼치아나한자미스러운가당을일 우디커찬귀조롱형을택하였다고 의부대기는 조군인리왕을마즌 통형영

전학법한승

선교학문

선시대의 요구들따라몸 학해에 단커수왕을차으로 합 합교도 외잔한반도의 일컫만

農村の豆

足かり

사업등 착수진행하는 일반 이십평이나되는 조합사무 일당이총절당으로 건축하 단바 지난십일말일에 사은 성대하기행하

지 경우로는 의자금융등에 가하는등시에 매호에 함 모아서 소비조합을 만들 당시하면 의용품 모아서 소비조합을 만들 당시하면 의용품

의 들이손논에 감하주지아니하나 가는 그대신에 분푸리라도하게 무너 피해자는가해지 박상학을 제고한다더라(구미) 彦州面長 ō

事務。取扱 金泉에 사火 손해 느 별로업스나 방화의의심이 일으호 질시장에 지원대화당(鹽北金泉大和町)생 여 문곳에 서 불이 보고 살아 있다 나를 들는 이 나 이 되는 이 나를 하는 이 나를 하는

忠南扶餘が

다시 예권시대에당반이는 배자(牌子)를하야 해당아범은 배자(牌子)를하야 해당아범은

が対立の世界では 他人의土地

一賣渡

남의토디를파러로 横暴
む

日人

州山北王

사시도과 !이것이업다고 유을당한조현룡이 보석을장한 그녀자를끌고 당디경 참서에가서 밀려의손해를 백고자 호소한질과 납체에드비용 컨부를내기로하고그일을락칙시 기명(다는데일반인그녀장이병장 등 발에의하면그녀자가인쇄소의조 더히실수가입다」「다빨하면

圖章僞造

당한을맛날써이는인쇄소의시기 인종알고 약호하였더나 그후에 친히들며 알펴보니까 인쇄소의 지공에며 아모상식이 업사자 기로약속하였스나 금일까지 이 백오십원에 대한채무 반상함등 학속의 사이 아니함으로 약속위

생도로교수증 에게 제치등본이 분명라하는 이에 무슨일이잇는것은 분명라하는 이에 무슨일이잇는것은 분명라하는 의로 증명하였나무를 이주면장의 말을드르르 수 가주한 사실이십다고하야 그곳에 무고고소를제 기한다더라(수5기) 納税期日全變更む

き そかい 당디에도착하

假

작인이

하는 보 확산으로 장기가 있는 사람 환화) 장정이(美京仁)의 수실 병상이로 장기가 있는 사람 명이회집하여 눈물을 받리며 사람이회집하여 원만한해질이 아니면 골퍼 주기로 동맹하역다합이로 취관 이 나이로이것을 계산하니 배두리 보이로이것을 계산하니 배두리 전 사람들을 바더다더라

한 한 이 이 아이 아이를 무엇이다 고중에서자미 잇 는이 아이 다 산품을 들이 켓 십나다 다 삼 金 拾 **ゆり最後の人科コリ**

十二月十日

아모조 **복不分おガゴロム**

이 야기全 게 걸 이 다 로 의 一世紀日時中日初島本

이 은손님의 규한일 가 있습니 집 시가를차거다니면서도 취용 입다 지금하자 고하여도 아니되다 본 불건너친구이 겠지 만일조선 인이 붉으므자라면 그도 안한었다 한일 다시라에게 이 말일 것이나 살고 만일조선 이 무서운것이 말일 것이나 살고 만일조선 이 무서운것이 말일 지하나 말일 지하나 말이 무서운것이 되면 그리에게 차별하는 것이 되고 말이 되었다.

왕만을 두손으로바디 내머리에 살고 권례에의자하야 왕의병쉬 를하면스니 그병치는 죄를것더라도 용사하면 달라는 뜻가 영성 먹었었다 그리고는 성만찬(聖縣隆)을 다 가려고는 성만찬(聖縣隆)을

호랑이이야기현상모집

恒지封어보中주시